

어머니의 대화방식과 대학생 자녀의 신경증 경향성과의 관계

박외숙
교육대학원

I. 서론

Gordon의 부모효율성훈련(PET: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프로그램을 포함한 여러 종류(예를 들면, 이경우 역, 1994)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부모의 대화방식이다. Gordon의 프로그램에서는 대화에 걸림돌이 되는 기본형태를 12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이형득 역, 1987). 그 기본 형태에 포함되는 것은 ①명령, 지시/ ②주의, 협박/ ③훈계, 설교, 교화/ ④충고, 해결책의 제안/ ⑤강의, 교수, 논리적 논쟁의 전개/ ⑥판단, 비난, 불일치/ ⑦칭찬, 동의/ ⑧욕설, 조소, 수치심/ ⑨해석, 분석, 진단/ ⑩격려, 동정, 위로, 지원/ ⑪탐문, 질문/ ⑫철회, 주의분산, 농담이다. 국내에서 이성진(1994)은 부모들의 일상적인 대화를 두가지 말투, 즉 해결책을 제시하는 말투와 정신적 좌절감을 일으키는 말투로 분류하고 각각에 포함되는 말투의 종류를 제시하였다. 해결책을 제시하는 말투에는 강요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말, 경고하고 위협하는 말, 당부 설교하고 도덕적 행동을 요구하는 말, 충고하고 제안하는 말이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정신적 좌절감을 일으키는 말투에는 평가 비판 우롱하는 말, 탐색 질문 및 심리분석의 말, 둘러대기, 비교하기와 같은 말투가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하였다.

국내에서도 Gordon의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한국지역사회학교를 중심

으로 이루어지는 이성진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실제로 많은 부모들, 특히 어머니를 대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이와같은 프로그램의 효과를 다룬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들면, 우리나라 문화권의 부모들에게도 교육을 시킨 후에 자아개념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김재연, 1993), 교육의 태도와 결혼만족도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이동철, 1993)가 보고되고 있다.

반면에, Gordon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교육받은 강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 후에 12가지 걸림돌이 되는 언어반응을 사용하는 빈도가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를 살펴 본 연구(이혜란, 1993)에서는 흥미로운 보고를 하고 있다. 즉, 교육을 받은 강사들이 명령, 판단, 비판, 비난하기, 욕하거나 비웃기와 같은 말투는 많이 감소한 반면에, 설교, 훈계하기, 충고와 해결책 제시하기, 강의하고 가르치기, 칭찬하고 안심시키고 동정하고 달래는 식의 말투는 별로 감소하지 않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같은 결과는 비교문화적인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다시말해서, 그 연구의 결과는 개인주의 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는 미국에서 개발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집단주의 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 문화권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는 부모 역할에 대한 기대 자체가 미국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문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개인주의-집단주의 (Hofstede, 1980) 개념을 적용시켜 볼 수 있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비교하는 가장 큰 준거는 내집단, 즉 부모와 직계가족에 대한 염려와 관심의 정도이다(박외숙, 1997; 이영희, 박외숙, 고향자, 1995; Hui & Triandis, 1986; Triandis, 1986; Triandis & Others, 1985).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삶의 기본단위가 개인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경계가 분명하고 그 문화권에서 부모의 역할이란 자녀의 독립성, 자율성, 책임성을 키워주는 것이다. 자연히 그와 같은 문화권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아야 하고, 자녀를 하나의 개체로 존중하고 수용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부모상이다. 하지만, 일본과 중국, 우리나라와 같은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삶의 기본단위가 개인이 아

나라 개인이 소속하고 있는 내집단(쉽게말해서 가족 또는 '우리'라고 할 수 있는 관계)이다. 나의 행복이 곧 내 부모와 가족의 행복이며, 내 부모와 가족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을 의미한다고 믿는 문화이다. 따라서 그와같은 문화권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부모와 가족을 우선하는 효와 우애를 가르치고, 부모는 자녀가 성공하도록 헌신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바람직한 부모상이다.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타인에 대한 존중, 독립성, 자율성, 책임성 등을 중요시한다면, 이와 다르게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가족간에 서로 관심을 갖고 염려 해주면서 우리는 하나라는 유대감과 상호의존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는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에게 충고하고 설득하고 가르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끈끈함과 상호의존성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같이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볼 때,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개발된 미국식 부모교육 자체를 우리나라 부모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에 우리나라 부모들에게 부모교육을 실시하여 부모의 언어방식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Gordon이 제시하는 12가지 걸림돌이라고 하는 식의 말투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가정해보자. 그 교육과정을 통하여 실제로 부모들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투만 변화된다면, 그 효과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 의문스럽다. 왜냐하면 언어방식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말하는 사람의 믿음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자녀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는 믿음,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나의 행복이 희생되는 것을 감수한다는 양육자세, 그리고 아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야 사람이 된다고 보는 인간관을 지니고 있는 어머니라면, 항상 아이에게 가르치려고 할 것이고 설교와 충고, 설득하는 말투를 빈번하게 사용할 것이다. 이에 반해서, 자녀의 성공과 나의 성공과는 무관하다는 믿음,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양육자세, 그리고 아이는 스스로 커 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인간관을 지

니고 있는 어머니라면,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충고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말투를 훨씬 덜 빈번하게 사용할 것이다.

다시말해서 부모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말투 자체만 변화된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지속적인 효과라고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즉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개발된 부모교육을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적용하게 될 때, 교육의 효과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가치관의 변화까지도 일어나야 한다고 예상되고, 그와같이 교육의 효과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부모들 자신이 지니고 있는 기존의 가치관이 위협을 받게 되고 혼란을 경험하게 될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한편, 개인주의 사회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와 우리 사회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가 일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언어기법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고 그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받아들여지는 언어기법으로 대체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윤리적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보게 된다. 물론 어떤 기법들은 우리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언어방식들은 비록 서양에서는 비효과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문화권에서는 받아들여질 만하고 오히려 적절하고 자연스러운 언어기법이면서 자녀의 정신건강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비교문화적인 관점에서 부모교육의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이 사용하는 언어방식 중에서, 특히 Gordon이 제시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대화방식이 자녀의 정신건강에 과연 어느 정도 결정적인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현재까지 많은 연구(예를들면, 이동철, 1993; 이혜란, 1993)에서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교육의 효과로 인하여 부모의 언어반응이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부모 자신의 자아개념, 양육태도(김재연, 1993) 등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방향을 달리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그대로 적용하기에 앞서서, 오히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의 의사소통 방식에서 자녀의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특별히 문제가 되는 언어방식이 어떤 것인

가를 밝혀내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양의 대화기법을 그대로 무조건 다 적용하기 보다는, 우리 문화권에서도 사용이 자제되어야 한다고 평가되는 언어반응부터 우선적으로 걸러내 보자는 의도에서이다.

물론 현재까지 기존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의사소통 방식과 아동의 다양한 특성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시도한 연구들이 있었다. 예를들면, 어머니의 의사소통 방식과 자녀의 성격특성(서경아, 1997), 어머니의 언어반응 유형과 자녀의 내외통제성(서선주, 1988), 어머니의 언어반응유형과 자녀의 감정조망(이점숙, 1990) 또는 역할조망능력(신양재, 1986)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들의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어머니의 언어반응 유형 측정 도구의 형태는 모두 유사했다. 검사지 자체에서 답지 반응을 제공하고 있다. 즉 자녀의 입장에서 특정한 상황마다 어머니의 언어반응 유형과 유사하다고 평가되는 답지 반응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이들의 연구와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의 관심은 어머니의 대화방식을 크게 이론에서 제시하는 촉진적 또는 비촉진적 대화방식으로 분류하고 그와같은 언어사용의 빈도가 자녀의 정신건강, 특히 신경증의 경향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의사소통 이론에 근거하여 촉진적이라고 분류되어지는 언어반응과 비촉진적이라고 분류되어지는 언어반응이 과연 자녀의 신경증적 경향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다음의 두가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어머니의 촉진적인 대화방식과 자녀의 신경증적 경향성과는 어떤 관계가 나타날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비촉진적인 대화방식과 자녀의 신경증적 경향성과도 어떤 관계가 나타날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참가자

어머니의 대화방식과 자녀의 신경증적 경향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울산대학교 교양과목인 인간행동의 이해를 수강한 총 93명이 연구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의 전공은 대부분이 어문계열과 공학계열, 그리고 자연계열이었다. 학년은 2학년이 약 2/3를 차지하였으며, 나머지는 3학년과 4학년이 비슷한 비율로 섞여 있었다. 참가자들의 남녀 비율을 보면, 남학생이 약 30% 였으며, 나머지 약 70%는 여학생들이었다. 성장하면서, 아버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고 반응한 학생들은 약 20% 였으며, 나머지 80%는 어머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성장하면서 아버지와 더 많이 갈등을 경험했다고 답한 학생들은 약 60% 였으며, 나머지 약 30%의 학생들은 어머니와 더 많은 갈등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 참가한 학생들의 분포를 요약하면, 남학생들에 비하여 여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하였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고, 다수의 학생들이 어머니 보다 아버지와 더 많은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도구

1) 어머니의 대화방식 측정

본 연구에서는 부모교육, 의사소통기법과 관련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축진적인 대화방식과 비축진적인 대화방식을 측정하기 위한 두개의 검사지를 제작하였다. 이 척도들은 어머니 자신이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가 지각하는 어머니의 대화방식을 평가하도록 만들었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의 관심은 실제로 어머니가 어떤 방식으로 자녀에게 대화하는지가 아니라, 자녀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대화방식을 어떻

게 지각하는지에 더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각 척도마다 다음과 같은 지시를 따르도록 하였다. “다음의 태도나 말투가 여러분의 어머니를 어느 정도 연상시키는지에 따라 답하세요.” 각 문항은 ‘그렇다’ 또는 ‘아니다’로 대답하도록 되어 있다.

촉진적인 대화방식 검사지는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문항1. 매우 신뢰할만하다(신뢰)
- 문항2. 나에게 관심이 많다(관심)
- 문항3. 공평하시다(공평)
- 문항4. 나에게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는 편이다(칭찬/격려)
- 문항5. 내 말을 잘 들어주신다(경청)
- 문항6. 나의 감정을 잘 이해해주시고 받아주신다(감정이해)
- 문항7. 나는 어머니에게서 사랑과 정을 듬뿍 느낀다(사랑)
- 문항8. 어머니는 나를 정말 믿고 인정해주신다(인정)

비촉진적인 대화방식 검사지는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문항1. 충고, 설득, 설교를 자주 하시는 편이다(충고/설득)
- 문항2. 명령하는 말투, 시키는대로 할 것을 자주 요구하는 편이다(명령/강요)
- 문항3. 나에게 대하여 비평적이고 평가적인 말투를 자주 하신다(비평/평가)
- 문항4. 경고나 협박을 자주 하시는 편이다(경고/협박)
- 문항5. 우롱하는 말투를 자주 하신다(우롱)
- 문항6. 남과 나를 비교하는 말투를 자주 사용하신다(비교)
- 문항7.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씀을 자주 하신다(상처)
- 문항8. 어머니는 칭찬보다 지적을 잘 해주시는 편이다(지적)
- 문항9. 어머니의 나에게 대한 태도나 말투에는 일관성이 없다(일관성결여)

촉진적 대화방식 검사지의 점수범위는 0-8점이며, 어머니의 촉진적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는 어머니가 촉진적인 대화방식을 많이 사용한다고 평가한 것이다. 이에 반해서, 비촉진적 대화방식 검사지의 점수범위는 0-9점이며, 어머니의 비촉진적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는 어머니가 비촉진적인 대화방식을 많이 사용한다고 평가한 것이다. 촉진적 대화방식과 비

촉진적 대화방식 검사지에 대한 Cronbach alpha 신뢰도 계수는 각각 .78, .7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각 검사지별로, 문항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가 다음의 표1과 표2에 나타나 있다.

표1. 촉진적 대화방식 문항간의 상관계수

문항	1	2	3	4	5	6	7	8
1 (신뢰)								
2 (관심)	0.08							
3 (공평)	0.35*	0.20*						
4 (칭찬/격려)	0.11	0.32*	0.42*					
5 (경청)	0.14	0.22*	0.36*	0.53*				
6 (감정이해)	0.12	0.33*	0.35*	0.45*	0.44*			
7 (사랑)	0.19	0.45*	0.43*	0.42*	0.38*	0.55*		
8 (인정)	0.25*	0.16	0.28*	0.37*	0.24*	0.34*	0.28*	
총점	0.44*	0.49*	0.68*	0.74*	0.67*	0.71*	0.72*	0.58*

표2. 비촉진적 대화방식 문항간의 상관계수

문항	1	2	3	4	5	6	7	8	9
1 (충고/설득)									
2 (명령/강요)	0.14								
3 (비평/평가)	0.15	0.41*							
4 (경고/협박)	0.15	0.34*	0.15						
5 (우롱)	0.11	0.29*	0.38*	0.38*					
6 (비교)	0.07	0.39*	0.37*	0.32*	0.21*				
7 (상처)	0.04	0.46*	0.34*	0.26*	0.28*	0.43*			
8 (지적)	0.26*	0.19	0.21*	0.13	0.21*	0.04	0.15		
9 (일관성 결여)	0.07	0.36*	0.12	0.27*	0.35*	0.24*	0.27*	0.20*	
총점	0.39*	0.70*	0.62*	0.54*	0.60*	0.61*	0.62*	0.47*	0.56*

대부분의 문항간에 상관계수가 .05수준에서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문항간의 변별력은 다소 떨어진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각 검사지의 총점은 검사지 내의 모든 문항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상관계수를 나타낸 것으로 미루어 보아, 각 검사지 내에서는 비슷한 유형의 문항들로 묶였다고 평가된다.

또한 촉진적 대화방식 검사지의 총점과 비촉진적 대화방식 검사지의 총점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해본 결과, -.61로 나타나서 두 개의 검사지간에는 상당히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된다. 즉 어머니가 촉진적인 대화방식을 비교적 자주 사용한다고 평가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어머니가 비촉진적인 대화방식은 상대적으로 덜 자주 사용한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역으로, 어머니가 촉진적인 대화방식을 비교적 덜 자주 사용한다고 평가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어머니가 비촉진적인 대화방식을 상대적으로 더 자주 사용한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자녀의 신경증 경향성 측정

자녀의 신경증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천성문(1999)이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원래 이현수(1997)가 제작한 Eysenck의 성격검사 총 81개 문항 중에서 천성문이 신경증 경향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 26개를 추출한 것이다. 천성문은 신경증 척도의 Cronbach alpha 신뢰도 계수는 .83 이라고 보고하였다.

3.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촉진적 대화방식 검사지와 비촉진적 대화방식 검사지 각각의 총점을 신경증 척도 점수 총점과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다음에, 각 검사지 내에서의 문항별로 신경증 척도 총점에 대한 t-test를 하였다. 상관계수와 t-test 점수는 모두 .05수준에서 유의도 검증을 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어머니의 촉진적 대화방식과 자녀의 신경증 경향성과의 관계

우선 어머니의 촉진적 대화방식과 자녀의 신경증 경향성간에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촉진적 검사 총점과 신경증 척도의 총점간에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상관계수(-.08)가 통계적으로 전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촉진적인 대화방식을 자주 사용하는것이 그들의 신경증 수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다음에는, 자녀의 신경증 수준 점수를 촉진적 대화방식을 측정하는 8개의 문항 각각에 대하여 차이검증을 하였다. 그 결과가 표3에 제시되어 있다.

표3. 자녀의 신경증 점수에 대한 어머니의 촉진적 대화방식 문항별 비교

문항	그렇다		아니다		t
	N	M(SD)	N	M(SD)	
1 (신뢰)	66	12.72(5.70)	27	11.88(4.44)	0.73
2 (관심)	86	12.29(4.93)	7	14.85(5.14)	-1.31
3 (공평)	59	12.08(4.90)	34	13.17(5.07)	-1.02
4 (칭찬/격려)	53	12.75(4.70)	40	12.15(5.33)	0.60
5 (경청)	71	12.21(5.09)	22	13.36(4.55)	-0.95
6 (감정이해)	54	12.12(5.11)	39	12.97(4.77)	-0.80
7 (사랑)	66	12.30(4.93)	26	12.88(5.20)	-0.50
8 (인정)	65	12.00(5.11)	28	13.60(4.49)	-1.43

표3에서 살펴보면, 촉진적인 대화방식 척도에서는 어떤 문항도 자녀의 신경증 점수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해석하면, 대학생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아주 신뢰할만하고, 칭찬과 격려

를 많이 해주시고, 자신에게 관심이 많고, 공평하시고, 자신의 말과 감정을 수용해주시고, 어머니에게 정을 느끼며, 어머니가 자신을 인정해준다고 지각하는 학생들과 그렇지 못하다고 지각한 학생들간에 신경증 경향성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축진적인 대화방식과 자녀의 신경증 경향성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첫 번째 가설은 지지할 수 없었다.

2. 어머니의 비축진적 대화방식과 자녀의 신경증적 경향성과의 관계

어머니의 비축진적 대화방식과 자녀의 신경증적 경향성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두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우선, 비축진적 대화방식 척도의 총점과 자녀의 신경증 척도 점수간에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상관계수(.19)가 .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어머니의 비축진적 대화방식 척도의 각 문항별로 자녀의 신경증 점수를 비교하여 t-test를 하였다. 그 결과가 다음의 표4에 제시되어 있다.

표4. 자녀의 신경증 점수에 대한 어머니의 비축진적 문항별 비교

문항	그렇다		아니다		t
	N	M(SD)	N	M(SD)	
1 (충고/설득)	64	12.57(4.81)	29	12.27(5.37)	0.27
2 (명령/강요)	42	13.47(4.81)	51	11.66(4.99)	1.76
3 (비평/평가)	43	13.55(5.02)	50	11.56(4.77)	1.96*
4 (경고/협박)	14	13.50(5.31)	79	12.30(4.91)	0.82
5 (우롱)	19	12.89(5.99)	74	12.37(4.70)	0.42
6 (비교)	44	13.54(5.24)	49	11.53(4.54)	1.98*
7 (상처)	22	14.27(4.44)	71	11.92(5.02)	1.96*
8 (지적)	59	12.66(4.26)	34	12.17(6.06)	0.45
9 (일관성 결여)	37	12.37(4.51)	56	12.55(5.28)	-0.16

* $p < .05$

표4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어머니의 비축진적인 대화방식 검사 문항 중, 3개의 문항(어머니가 자신에 대하여 비평적이고 평가적인 말투를 자주 사용하시는 경우, 남과 비교하는 말투를 자주하시는 경우, 그리고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 경우)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해석하면, 어머니의 대화방식이 평가적이거나, 남과 비교하는 말투를 종종 사용하거나, 또는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말씀을 자주 한다고 지각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고 지각한 학생들에 비하여 신경증적 경향성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비축진적인 대화방식과 자녀의 신경증적 경향성과는 어떤 관계가 있으리라는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과연 서양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축진적인 대화방식과 비축진적인 대화방식 유형을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자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학생 자녀의 신경증 경향성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고자 이루어졌다.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축진적인 대화방식과 자녀의 신경증적 경향성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 자녀가 기억하기에 어머니가 자신을 인정해주시고,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 말을 잘 들어주시고, 감정을 잘 이해해주시는 축진적인 대화방식을 자주 사용했다고 평가한 학생들이나 그와같은 축진적인 대화방식을 자주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평가한 학생들간에 신경증 경향성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자녀들에게는 어머니가 얼마나 축진적인 대화방식, 예를들면, 자녀의 감정을 잘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는 말투를 많이 사용하는 편인지 그렇지 않은지의 문제가 그들의 신경증적 경향성의 형성에 그렇게 민감한 변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어머니의 비촉진적인 대화방식에서는 몇가지 유형이 대학생 자녀의 신경증적 경향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즉, 어머니가 평가적인 말투, 비교하고 상처를 주는 말투를 자주 사용한다고 평가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편이라고 평가한 학생들에 비하여 자신의 신경증적 경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해석하면, 어머니의 비촉진적인 대화방식 중에서도 평가적이거나 남과 비교하거나, 상처를 주는 말투를 자주 사용하는 경우는 자녀의 신경증적 경향성과 특히 관계가 있는데 반하여, 자녀에게 충고하거나 문제해결을 해주는 것과 같은 대화방식은 자녀의 신경증 경향성과 깊은 관계가 없었다. 이는 PET의 한 연구(이혜란, 1993)에서 PET 부모교육을 받은 경우의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평가적인, 우롱하는 말투는 의미있게 감소했는데 반해서, 설득하고 충고하고 문제해결을 해주는 대화방식은 의미있는 감소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한 것 같다.

본 연구의 결과가 시사해주는 점이 다음과 같다. 그것은 Gordon을 포함한 다른 부모교육 프로그램에서 촉진적이지 못하다고 제시하는 충고, 설득, 명령, 지시, 경고, 협박, 문제해결 제시, 우롱, 남과 비교하기, 비평, 비난과 같은 대화방식 중에서도,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특히 자녀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대화방식은 평가적인 말투, 남과 비교하는 말투, 그리고 상처를 주는 말투일 것이라는 점이다. 즉 그와같은 말투는 자녀들에게 정신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서 어머니가 신중하게 사용하여야 할 언어유형이지만, 이에 반하여 충고하고 제안하고 문제해결, 설득하는 정도의 말투는 우리 문화권에서는 자녀들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아니면 오히려 '우리 어머니다운' 반응이라고 수용하는 수준의 언어유형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 결과에 대한 해석을 우리나라 문화권의 가치관 문제와 결부해서 접근해보고 싶다.

우선 본 연구의 결과는 비촉진적인 말투라고 하는 것의 범위를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결국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부모교육을 하면서 자녀에게 충고와 제안, 위로까지도 대화에서 걸림돌이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또 다른 개인주의 가치관

의 강요라는 비윤리적인 교육의 결과는 아닐 것인가? 개인주의 가치관, 예를들면, 'That's none of my business'라는 개인주의 가치관을 완전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도 자식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자 곧 부모에 대한 효도라고 믿는 집단주의 가치관에 젖어있는 부모들에게 충고, 설득까지 완전히 배제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개인주의 가치관만이 옳은 것이고 집단주의 가치관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가르치는 결과가 되어 심한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다시 말해서 서양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개발된 것이다.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사용하기에는 많이 수정되고 걸러지고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개인주의 문화권의 나라에서 반드시 정신이 건강한 사람을 길러내는 것은 아니다. 개인주의 문화권에서는 오히려 많은 개인들이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다는 보고(Triandis, 1986)가 있다. 국내에서의 개인주의 가치관도 인간의 소외감과 무력감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한성열, 이흥표, 1994)가 있다. 물론 집단주의 문화권에서 정신이 건강한 사람을 길러낸다고도 말할 수 없다. 개인주의 문화권에서의 교육, 상담의 목표는 독립성, 자기실현, 자율성, 책임성 등인데 반하여,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나 보다는 내집단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희생, 효도, 등을 아름다운 미덕으로 받아들인다. 과연 이상적인 교육의 목표란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는 데에는 본 연구가 지니는 몇가지 제한점으로 인하여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싶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부모의 대화방식(축진적/비축진적)은 부모의 언어를 그대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자녀의 평가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결과를 해석해야 할 것이다. 다시말하면, 실제로 어머니가 자녀에게 어떤 대화방식을 취하고 있는가와 자녀가 어머니의 대화방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관심은 실제 어머니의 대화방식 보다는 자녀가 어머니의 대화방식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 참가한 대학생들의 남녀분포가 고르지 못하고 여학생들의 참여가 더 많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울산지역의 대학생들의 반응에만 국한되어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도 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에 신중을 기해야 할 점이다. 다른 지역, 예를들면, 서울 지역이나 전라도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해 본다면 더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본 연구의 목적을 더 충실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 든다. 한가지는, 실제로 부모의 대화반응을 직접 수집하여 분류해 본다면, 본 연구에서 포함시킬 수 없었던 우리 부모들 특유의 반응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든다. 예를들면, 설득과 충고, 문제해결의 제시라 하더라도 부모에 대한 자녀의 신뢰감 수준이라든가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서 자녀에게 다르게 받아들여질 것 같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녀를 배려하는 마음이 껌비된 설득, 충고와 자녀의 마음에 대한 배려보다는 부모 자신의 체면을 유지하거나 자신의 가치관을 지나치게 강요하려는 입장에서 일어나는 설득과 충고는 자녀에게 다르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비록 부모가 자녀에게 조롱하거나 욕설을 하더라도 그것이 끈끈한 정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감으로 엮어진 부모가 하는 반응과 무관심하고 냉담하고 무시하는 부모가 하는 반응과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부수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부모교육에서도 Gordon이 말하는 대화의 12가지 걸림돌을 무조건 배제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정된 우리나라 문화권에 적합한 형태로 다듬어진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부모 자신도 가치관의 혼란을 덜 경험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가지는 부모의 가치관의 변화와 대화방식의 변화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대화방식에 따라서 자녀의 신경증 경향성만 볼 것이 아니라, 자녀의 자기존중감 수준, 당위적인 사고(비합리적 사고)의 수준 정도 등을 분석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의 다양한 대화방식에 대하여 실제로 우리 자녀들의 느낌은 어떤지에 관한 그들의 평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재연(1993). 부모역할 훈련에서의 자아개념 및 태도변화에 관한 연구, 1993년도 학술 대회 P.E.T. 논문집, 43-106, 한국심리상담연구소.
- 박외숙(1995). 상담에서 추구하는 개인주의-집단주의 가치와 정신건강, 인문논총 제8집, 울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박외숙(1997). 상담심리학에서의 비교문화 연구: 상담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주의-집단주의 가치, 심리학에서의 비교문화 연구(한국심리학회 학술위원회 편), 295-345, 서울:성원사.
- 서경아(1997). 어머니의 의사소통 수준과 자녀의 성격특성과의 관계, 대구 효성가톨릭 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선주(1988). 부모의 언어적 통제유형과 아동의 내-외 통제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양재(1986). 부모의 언어적 상호작용 방식과 아동의 역할 조망 능력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동철(1993). 부모역할 훈련이 어머니의 교육 태도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1993년도 학술대회 P.E.T. 논문집, 107-162, 한국심리상담연구소.
- 이성진(1994). 부모-자녀 대화기법: 자녀들과 얘기할 때 당황한 적 많으시죠. 부모에게 약이 되는 프로그램2, 한국지역사회교육 중앙협의회.
- 이영희, 박외숙, 고향자(1995). 한국 대학생의 가치성향과 상담의 효과, 서울:집문당.
- 이형득 역(1987). 자율적 자녀육성을 위한 부모교육. 서울:형설출판사.
- 이경우 역(1994). 당신도 유능한 부모가 될 수 있다. 서울: 창지사.
- 이점숙(1990).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 및 아동의 감정조망과 단서활용,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 청구논문.
- 이혜란 (1993). P.E.T.의 효과에 관한 조사연구, 1993년도 학술대회 P.E.T. 논문집, 163-187, 한국심리상담연구소.
- 천성문(1999). 신경증적 비행청소년의 분노조절을 위한 인지행동적 집단치료 효과, 영남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한성열, 이흥표(1994). 개인주의-집단주의와 지각된 소외감의 관련성 연구, 한국심리학회 1994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357-367.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work-related values*. California: Sage.
- Hui, C. H. & Triandis, H. C. (1986). Individualism-collectivism: A study of cross-cultural researcher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7,

225-248.

- Triandis, H. C. (1986). Collectivism versus individualism: A reconceptualization of a basic concept in cross-cultural social psychology. In C. Bagley & G. K. Verma(Eds.), *Personality, cognition and values: Cross-cultural perspectives of childhood and adolescence*. London:MacMillan.
- Triandis, H. C., Leung, K., Villareal, M. J., & Clack, F. L. (1985). Allocentric versus idiocentric tendencie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at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 395-415.